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 金泰亨
編輯人 金崙會
印刷人 金鳳會
發行處
서울·東大門區徽慶1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244-3717
對替口座：010983~31~0513119
郵便番號：130-091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5,000원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配付하오니 未拂込 宗親께서는 꼭 納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任員會(理事및監事) 開催

一九九〇年度 第一次 任員會

지난 七月十四日 上午 十一時부터 下午 三時까지 本 安東金氏會館 三層 會議室에서 開催하였다。

이날 任員會에서 泰亨會長 任의 開會辭에서 各 理事任이 選任된 것을 祝賀하고 各 理事任은 全宗人中에서 指導層의 位置에 계신 분들이고 五十萬 全國宗親과 祖上任을 爲해서 一心同体가 되어 盡心竭力하자고 强調하는 要旨의 開會辭(다음揭載)에 이어 常任副會長 崙會氏의 理事選任의 經過報告에서 理事 五十名中 新任理事가 二十六名이고 留任理事가 二十四名임을 發表하고 各派會長의 推薦으로 會長團 會議에서(總會에서의 委任事項) 選任된 것을 報告하였다。

이어서 前任會長에게 功勞牌(原文別添)와 先世詩文 八曲屏風을 贈呈하는 자리에서 感謝하다는 表示로 다음과 같은 答辭(別添)가 있었으며 常任副會長 崙會氏는 屏風의 先世詩文의 內容說明이 있었다

곧이어 本會議에 들어가서 任員들의 相互人事 紹介가 있었으며 都評議公派 鳳會理事의 緊急動議 發議가 있었는데 忠烈公 先祖任의 史蹟을 社會에 널리 弘報하는 顯揚事業을 提唱하였다。이어 討議案件으로 大宗會 所有 馬場洞 垈地賣却處分에 對한 討議에서 賣却處分 問題는 會長團에서 맡을수가 없으니 賣却處分科委員會를 構成하되 그 委員은 五人으로 하고 翼元公派 榮俊氏、大司成公派 喆會氏、副會長 卿辰氏、監事 在光氏等 五人에게 全權을 委任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이어 檢谷洞 齋室 建築에 對한 追加更正豫算案(三千五百萬원 豫算) 追認에 對하여 建坪 十六坪으로 間數六間이 되는 建物의 齋室을 今年 時享前에 建築할 것을 異議없이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이어 緊急動議로 採擇한 忠烈公 先祖任에 對한 훌륭한 業蹟을 蒐集하고 硏究하여 全國民으로부터 推仰받는 偉人이라는 것을 한層 높이고 宣揚하기 爲하여 忠烈公 顯揚事業推進分科委員會(五人 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하고 執行部가 次期理事會에 그 計劃案을 提出키로 하고 任員會를 盛大하게 마쳤다。

開會辭

大宗會長 泰亨氏

제가 지난 定期總會때 會長의 重任을 맡은 泰亨입니다。不德한 사람이 大安東金氏 大宗會長의 重大한 職責을 맡고 所任을 完遂할 것인지 念慮되는 바입니다。

오늘은 日氣도 不順한데 京鄕各地에서 各派會長任을 비롯하여 여러理事任들이 첫모임을 갖는 뜻깊은 자리입니다。많은 宗親들가운데서 選任된 理事任들께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理事陣은 우리 大宗會를 運營하는 執行機關으로서 여러분들은 指導者의 位置에 있음을 自覺하셔야 하는바 指導者의 姿勢로서는 열사람을 指導하는 사람은 百사람을 指導하는 力量이 있어야 하고 百사람을 指導하는 사람은 千사람을 指導하는 力量이 있어야한다고 生覺합니다。여러분의 그 힘이 各派宗中을 爲해서는 勿論 五十萬 全國 우리 宗親들을 爲해서나 우리 祖上任을 爲해서 理事陣 五十名의 힘이 얼마나 偉大한가는 다시금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것입니다。就任 人事때에도 말했드시 여러분이 다같이 大宗會 會長이라는 使命感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任期三年동안에 우리의 祖上任을 모시고 爲先事業을 하는 大宗會의 諸般事業에 一心同体가 되어 보다 훌륭한 宗中을 만드는데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기 付託드리는 바입니다。明會 前會長任때 다져놓은 傳統과 우리 大宗會의 일에 百科辭典格이고 功勞가 가장 많으신 常任副會長任을비롯한 有能한 副會長任들의協助를 받아 會長 저는 祖上任을 爲하는 일에 專心全力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더운 날씨이나 始終一貫 眞摯한 討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以上 人事에 가름합니다。

功勞牌

貴宗께서는 平素 崇祖理念이 透徹하시고 宗親間에 親睦과 團結心이 敦篤하신 분으로서 西紀 一九七七年 五月부터 一九九〇年 四月까지 安東金氏大宗會 會長으로서 滿十三年間 在任하시는 동안 安東金氏會館 買入을 爲始하여 己未 大同譜發刊、忠烈公影幀閣 建立、忠烈公齋室 管理人舍宅 建立、大宗會報發刊、檜谷洞 忠烈公遺墟碑閣 建立、忠烈公 神道碑閣建立、檜谷洞齋室管理人舍宅 建立等 爲先事業에 寄與하신 功勞가 至大함으로 그 功을 높이 찬양하고 이에 功勞牌와 아울러 副賞(先世詩文) 八曲屏風을 贈呈하나이다。

一九九〇年 七月一四日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亨

答辭

名譽會長 明會氏

오늘 저의 感激한 心情은 무엇에 比할수가 없읍니다。會長으로 있으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오즉 있다면 여러분께서 積極的으로 協力하여 주셔서 爲先事業을 한 것 外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에도 不拘하고 오늘 이와같이 功勞牌와 이 훌륭한 屏風을 副賞으로 주셔서 衷心으로 感謝드립니다。제가 이때까지 여러 公職에도 있었으나 그中에서도 값진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오즉 大宗會 會長職이였습니다。大宗會長이야말로 누구의 干涉도 받지않고 誠心誠意껏 使命感을 갖고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國民勳章 모란章도 받고 修交勳章도 받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여기에 副賞으로 주신 이 屏風은 제가 앞으로 家寶로 子孫代代로 保存하겠습니다。이 屏風을 朝夕으로 相對하면서 祖上任의 훌륭한 陰德을 기리면서 앞으로 崇祖睦族의 精神을 至上目標로 이바지 하겠습니다。屏風의 그림도 우리族親이 그린 그림으로 더욱더 所重하게 간직하겠습니다。글씨는 常任副會長 崙會氏의 글씨로 이런 훌륭한 글씨는 일찍이 보지 못했습니다。글씨 한字 한字를 精誠스럽게 써주신데 對하여 더욱더 感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慶北 醴泉의 四十餘戶 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마는 어려서부터 祖上任에 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나도 熱心히 공부해서 祖上任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決心하였습니다。大宗會 會長으로 있으면서 忠烈公 할아버지의 寫眞을 머리맡에 놓고 先祖를 기리며 왔읍니다。우리 大宗會가 이제는 기틀이 잡혔고 훌륭한 泰亨 會長任께서 앞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실것입니다。여러理事任께서 앞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여러理事任들의 積極的인 協助에 感謝드립니다。

(전호에서 계속)

그래서 三월말경에 겨우 고려도 원나라에 조정군(助征軍)을 파견하기로 정의(廷議)가 결정되니 최초의 안(案)으로 되돌아가서 김방경(金方慶)의 아들 혼(忻)이 수백명의 부대를 인솔하고 원나라에 가기로 했다。실제의 부대가 개경(開京)을 떠난 것은 四월에 들어서였다。

그러나 다음五월 장순용(張舜龍)이 귀국해서 왕(王)에 휴행(携行)해온 중서성(中書省)의 서신(書信=牒)을 빠졌다。그 서신에 의하면 반란(叛亂)은 이미 평정(平定)하려고 하고 있으며 북변일대(北變一帶)의 땅은 하루하루 평온(平穩)을 되찾고 있다。현재 원(元)나라로서는 고려의 조정군(助征軍)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의 조치는 취하지 말도록하라는 것이었다。장순용(張舜龍)은 고려(高麗)의 조정군(助征軍)과 동경부근(東京附近)에서 만났는데 아마 멀지않아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인가 보고있다。

이 원나라의 내란(內亂)의 평정(平定)에는 그후 아직 어느기간이 필요했다。이 때문에 충렬왕(忠烈王)과 비(妃)구쓰루가이미시의 五월의 입조(入朝)하는 것은 부득이 연기(延期)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변(事變)으로서 六월에 홍다구(洪茶丘)는 도라하(河)에서 데루와다이군(軍)을 격파하고 빛나는 무훈(武勳)을 거두었는데 그 소문은 초여름에 고려(高麗)에 들어왔다 홍다구(洪茶丘)는 그 용맹함을 포상하며 백금오십양(白金五十兩)、금안(金鞍)、굴레(靷)、궁시(弓矢) 등을 하사했다는 소문까지 전해졌다。

김방경(金方慶)은 홍다구(洪茶丘)라는 젊은 무장(武將)이 한걸음 한걸음 위로 위로 자기 지위(地位)를 쌓아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같았다。

세조(世祖) 후비라이가 북변(北邊)의 반적(叛賊)을 평정(平定)한 것은 늦가을 경인 지원 十四년(至元十四年) 서기 一二七七年)은 원나라로서는 거의 완전히 일년간 내전(內戰)에 밝고 어두운 해라고 말해서 좋을 것이다。그 지원 十四년도 저물어가려고 하는 十二월 十三일에 고려로서는 벌써 꼭 一년 전에 일어난 무고사건(誣告事件)과 같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이번에는 전대장군 위득유(前大將軍 韋得儒) 중랑장 노진의(中郎將 盧進義) 김복대(金福大) 등이 연명으로서 김방경부자(金方慶父子)가 모반(謀叛)을 꾀하고 있다고해서 그의 연판장(連版狀)을 당

風濤 (29) 井上靖 著 金崙會 譯

시 염주(塩州)에 있는 둔전경략사(屯田經略使) 혼도(忻都)에 제시한 사건이었다。판장(叛狀)은 칠개조(七個條)로서 인정되었다。

一、방경(方慶)의 자 혼(子忻)、사위 조변(趙忭)、의남(義男)한희유(義男韓希愈)및 공유(孔愉)、나유(羅裕)、안사정(安社貞)、김천록(金天祿) 등 四백 여인이 왕(王)、공주 및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죽이고 강화(江華)에 들어가서 반란을 꾀하고 있다。

二、동정(東征=日本征伐)후에 군기(軍器)는 전부 당연히 관(官)에 받쳐야하는데 방경(方慶)과 그 친척들은 집에 사장(私藏)하고 있다。

三、전함(戰艦)을 만들어 반남(潘南)、곤미(昆湄)진도(珍島)에 두고 무리를 모아서 모반(謀叛)을 꾀하고 있다。

四、그들은 집을 다루가치(達魯花赤)의 공관(公館)가 가까이 옮겨서 고류동(孤柳洞)에 거(居)하고 있다。

五、나라로서는 빨리 여러 섬의 백성들을 명하여 내지(內地)에 들어와서 살도록 할 것。방경부자(方慶)는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해변에 살도록 할것。

六、동정(東征)때에 수전(水戰)을 배우지 않은 자로 하여금 초공(梢工)、수수(水手)를 식혀서 전쟁에 불리하도록 할 것。

七、또 방경의 아들 혼(忻)으로하여금 진주(晋州)를 지키게 하고 막객(幕客) 전유(田儒)를 경산부(京山府)를 지키게 하고、의남(義男)안적재(安迪材)를 합포(合浦)에 진주(鎭駐) 시키고 한희유(韓希愈)로 하여금 병선(兵船)을 맡게하여 행응(饗應)을 하기분이 나빠서 잠자코 있었다。

충렬왕(忠烈王)、공주(公主)、혼도(忻都)、석말천구(石抹天衢) 등이 같이 앉은 자리에서 재신(宰臣)、유경(柳璥) 원부(元傅) 등이 소(訴)를당한 자를 신문해서 진상(眞相)을 규명(究明)하기로 했다。

유경(柳)과 원부(元傅)는 교대로 입을 열어 규명(糾明)을 거듭했다。엄한(嚴寒)의 계절이어서 화기(火氣)도 없는 방은 한기(寒氣)가 가득 찼다。신문(訊問)을 받는 자들의 답(答) 중에는 김방경(金方慶)의 가랜 목소리로나 지막하게 더듬더듬거리며 김방경(金方慶)의 슬픔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듯 하였다。일각(一刻)도 지나지 않아서 반장(叛狀)될만한 근거(根據)될만한 것이 잡을래야 잡을만한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해졌다。다만 한희유(韓希愈) 등이 병기(兵器)를 사장(私藏)했다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죄는 논(論)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도 김방경(金方慶)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위득유(韋得儒) 노진의(盧進義) 등은 나라를 근심걱정하는 나머지 경솔(輕率)하게 풍설(風說)을 터뜨려서 일이 여기까지 이르게 한것은 자기들의 지나친 행동이었다고 사과하였다。그러나 김재상(金宰相)을 둘러싼 의혹(疑惑)의 구름이 거친것은 김재상(金宰相=金方慶)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김방경(金方慶)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아직 일찌기 맛보지 않았던 분한 것과 슬픈 것을 잡을수 없는 감정이 마음을 무겁게 가득 채웠다。六十七년의 생애를 받쳐 국사에 진력(盡力)해온 결과가 이러한 수치와 반항(反抗)을 받을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며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理解)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무고자(誣告者)들은 다 현재 요직(要職)에 있는 자들로서 일찌기 김방경(金方慶)의 부하(部下)에 있던 자들이었다。위득유(韋得儒)는 일본정벌의 종군자(從軍者)였고 노진의(盧進義)、김복대(金福大)는 삼별초(三別抄)의 역(役)에 종군(從軍)했던 자이다。김방경(金方慶)은 그자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얻어맞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만일 그러할만한 일이 있다면 일찌기 군기를 문란한 일로서 그들을 처벌할 일하나뿐이었다。그때 일을 근거로 한다면 김방경(金方慶)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간들로부터 원한을 받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군의 통솔자(統率者)로서 김방경(金方慶)은 부하에 대해서 항상 준엄(峻嚴)한 태도로 임하였다。멸망(滅亡)에 임박한 나라의 군대를 그것을 도적(盜賊)의 집단화 할것을 지키는데는 여하히 준엄(峻嚴)했다 해도 준엄(峻嚴)에 지나친일은 없었다。사건은 일응 여기서 해결되어 지원(至元) 十四년(서기 一二七七년)은 저물었다。내일이면 충렬왕(忠烈王) 四년 신년 축하를 위하여 참내(參內)할 김방경(金方慶)은 그자리에서 왕(王)에 관(官)을 물러날 것을 진술하였다。

二회에 걸친 무고사건(誣告事件)에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국정(國政)을 맡아보는 자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은데 있습니다。위득유(韋得儒) 등의 무리가 신(臣)에 대하여 한 행동은 신(臣)에 대한 사원(私怨) 차감(私憾)이었다。고려의 주석(柱石)으로서 김방경(金方慶)이 나라와 국사에 진력(盡力)해온 그 기나긴 과거만이 겨우 그들을 누를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무고자들의 생각 하나로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右左)되는 상태(狀態)에 있기 때문입니다。지금고려에 있어서는 제일큰 중요한 일은 원나라 관리들이 우리나라 국사(國事)에 간섭하는 일을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가 제일큰 일입니다。나라 정사(政事)를 맡아보는 자들의 마음이 두갈래로 갈라져서는 이번같이 나라가 언제 큰일을 초래할른지 알수 없으며 신(臣)이 재상(宰相)자리에 있음으로서 얻는 것보다 재상자리를 물러남으로서 얻는 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렬왕(忠烈王)은 김방경(金方慶)의 그 희망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방경(金方慶)은 국정(國政)을 맡아보는 자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다고 하였으나 정확히 말해서 두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었다。공주(公主)의 종자(怯怜口)인 장순용(張舜龍)、인후(印候)、차신(車信) 등이 매사에 큰 발언권(發言權)을 갖기 시작하였다。고려가 원나라에 사자(使者)를 파견(派遣)하는 경우 그 사자(使者)의 역(役)은 어느사이에 종자(怯怜口)들의 독점(獨占)이 되어버리고 중서성(中書省)과 고려사이를 연계(連繫)시키는 것으로서 고려의 군신(君臣)도 그들에게는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아니되었다。안으로는 공주(公主)를 싸고 돌고、밖으로는 중서성(中書省)을 받들고 있어 그의 교만(驕慢)한 언동은 눈에 거슬르기 시작했다。고려의 주석(柱石)으로서 김방경(金方慶)이 나라와 더불어 걸어온 그 기나긴 과거만이 겨우 그들을 누를 힘을 가지고 있었다。 원나라에 들어온 이나라의 권력(權力)이 강하고 그자들의 생각 하나로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右左)되는 상태(狀態)에 있기 때문입니다。지금고려에 있어서는 제일큰 중요한 일은 원나라 관리들이 우리나라 국사(國事)에 간섭하는 일을 어떻게 방비할 것인가가 제일큰 일입니다。나라 정사(政事)를 맡아보는 자들의 마음이 두갈래로 갈라져서는 이번같이 나라가 언제 큰일을 초래할른지 알수 없으며 신(臣)이 재상(宰相)자리에 있음으로서 얻는 것보다 재상자리를 물러남으로서 얻는 편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新任大宗會任員名單

一九九〇年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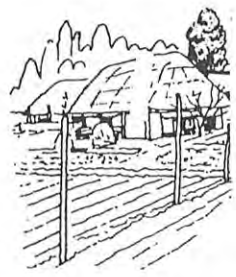
名譽會長 翼元公派 明會 新任
會長 翼元公派 泰亨 新任
常任副會長 按廉使公派 崙會 留任
副會長 提學公派 相祺 留任
副會長 按廉使公派 卿辰 新任
監事 翼元公派 在光 留任
監事 提學公派 涍植 新任

大宗會理事名單

各派会長推薦

密直司使公派 悳默 留任・서울
密直司使公派 仲會 新任・서울
開城尹公派 相國 留任・서울
開城尹公派 尚緯 新任・서울
郡事公派 在錫 留任・坡州
郡事公派 渭洙 新任・坡州
郡事公派 奭鏞 新任・서울
典書公派 卫教 留任・華城
典書公派 承會 留任・燕岐
副使公派 在殷 留任・仁川
副使公派 圭恒 留任・鐵原
大司成公派 光日 新任・서울
大司成公派 喆會 留任・서울
大司成公派 琮會 新任・서울
安靖公派 弘默 留任・公州
安靖公派 炳善 留任・城南
都評議公派 康鎬 新任・義城
都評議公派 鶴秀 新任・義城
都評議公派 鳳會 留任・서울
大護軍公派 東默 留任・서울
大護軍公派 良默 新任・咸平
提學公派 相喆 留任・並川
提學公派 得榮 留任・淸州
提學公派 相沃 留任・並川
提學公派 昌圭 新任・並川
提學公派 奎馨 新任・淸州
判三司使公派 奉善 留任・仁川
判三司使公派 德會 新任・仁川

十月(陰)은 崇祖의 달!!
敬虔한 歲薦으로 報本
의 精誠을 다합시다。



90秋季歲享 日程

月日(음력)	日辰	奉享位	墓(壇)奉安所
一一月二十五日(一〇月九日)	甲午	忠烈公諱方慶之墓	慶北：安東郡 祿轉面 竹松里 陵洞
一一月二十六日(一〇月一〇日)	乙未	冷平國大夫人竹州朴氏之壇	慶北：安東郡 豊山邑 檜谷洞
一〇月二十七日(九月 九日)		開城尹公諱七霖之壇	京畿：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一一月一七日(一〇月一日)	丙戌	掌令公諱萇之壇	京畿：儀旺市 甫一洞
		書雲觀正公諱綏之壇	京畿：抱川郡 倉水面 可養里
		大司成公諱九容之壇	京畿：抱川郡 倉水面 可養里
一一月二〇日(一〇月四日)	己丑	都評議公諱九鼎之墓	慶北：義城郡 義城邑 業洞杏村
一一月二一日(一〇月五日)	庚寅	貞簡公諱永煦之壇	忠北：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領三司事公諱藏之壇	忠北：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按廉使公諱土廉之墓	忠北：清原郡 梧倉面 慕亭里
		掌令公諱玖之墓	忠南：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典書公諱成牧之墓	忠南：燕岐郡 全東面 美谷里
一一月二三日(一〇月七日)	壬辰	文英公諱恂之墓	京畿：安養市 冠陽一洞 後山
一〇月二一日(九月 三日)	己未	密直司使公七祐之壇	京畿：抱川郡 一東面 杜稷里
一一月二五日(一〇月九日)	甲午	翼元公諱士衡之墓	京畿：楊平郡 楊西面 木旺里
一一月二四日(一〇月八日)	癸巳	文肅公諱永暾之壇	忠南：天原郡 並川面 佳田里 桃汀山
		上洛伯公諱縝之壇	
		提學公諱益達之壇	

自然의 攝理

꽃은 옛등컬에 뿌리있어 꽃피거니
새가 날 수있음은 깃이 있기 때문이다。
祖上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있으매라。

우리는 東邦의 禮義바른 君子의나라
祖上을 섬기고 忠孝하는 겨레의信條
家門의 뿌리가 뚜렷해온 文化의民族
우리는 家風을 지켜오는 韓民族이다

編輯室

訂正

지난 7月15日字 第29號 大宗會報 贊助金欄에 按廉使公派 在彦氏를 在珉으로 翼元公派 鏞澔氏를 容澔로, 太圭氏를 泰奎로 各各 誤植된 것을 訂正함.

贊助金名單

五萬五千원 翼元公派 壹萬원 翼元公派 允會(慶北聞慶郡)
五萬원 按廉使公派 康植(서울 吉洞) 壹萬원 按廉使公派 在俊(忠北槐山道安)
五萬원 按廉使公派 泰恒(忠北文義面) 壹萬원 大司成公派 洙영(忠北忠州市)
參萬원 郡事公派 天會(서울鍾岩洞) 壹萬원 典書公派 石鳳(京畿安城市)
參萬원 郡事公派 泰植(경기長安面) 壹萬원 按廉使公派 容默(釜山南川洞)
參萬원 按廉使公派 泰成(忠北鎭川邑) 壹萬원 大司成公派 泰正(서울大峙二洞)
參萬원 翼元公派 在範(서울始興洞) 壹萬원 大司成公派 龍學(서울道峰三洞)
貳萬五千원 郡事公派 在根(全北扶安郡) 壹萬원 大司成公派 在瑄(慶北金陵奉山)
貳萬원 翼元公派 在浩(釜山巨濟三洞) 壹萬원 按廉使公派 春默(忠北槐山曾坪)
貳萬원 按廉使公派 奎會(光州松下洞) 壹萬원 翼元公派 在玧(忠北清州牛岩)
貳萬원 按廉使公派 在環(서울祭基洞) 壹萬원 翼元公派 在東(慶南山淸生草)
貳萬원 按廉使公派 龍植(서울長旨洞) 壹萬원 副使公派 在萬(議政府市)
貳萬원 提學公派 奎浩(忠北槐山郡) 壹萬원 副使公派 漢俊(忠南公州利仁)
壹萬五千원 翼元公派 泰學(安養市安養洞) 壹萬원 翼元公派 潤會(慶北榮豊付石)
壹萬원 大司成公派 正會(서울方背洞) 壹萬원 大護軍公派 良默(全南咸平海保)
壹萬원 按廉使公派 在學(서울乙支六街) 壹萬원 翼元公派 晟會(全北高敞邑)
壹萬원 翼元公派 仁會(忠南扶餘石城) 壹萬원 按廉使公派 泰慶(서울鍾岩洞)
壹萬원 翼元公派 達洙(서울瑞草洞) 壹萬원 郡事公派 연묵(忠北鎭川邑)
壹萬원 翼元公派 在寬(서울弘恩洞) 壹萬원 典書公派 光珠(慶北慶州郡)
壹萬원 按廉使公派 台卿(忠北曾坪邑) 壹萬원 按廉使公派 在薰(忠北槐山淸安)
壹萬원 提學公派 在京(忠北沃川伊院) 壹萬원 翼元公派 榮武(경기坡州郡)
壹萬원 按廉使公派 泰榮(서울彌阿洞) 壹萬원 翼元公派 鏞澔(서울松坡三田)
壹萬원 大司成公派 升會(大邱大明二洞) 五萬원 翼元公派

奬學基金

按廉使公派 在華 新任・淸州
按廉使公派 在寅 新任・燕岐
按廉使公派 道演 留任・曾坪
按廉使公派 潤會 留任・梧倉
按廉使公派 章會 新任・文義
按廉使公派 燦會 新任・梧倉
按廉使公派 斗會 留任・서울
按廉使公派 泰權 新任・德坪
翼元公派 榮俊 留任・富川
翼元公派 玄默 新任・서울
翼元公派 仁默 新任・晋陽
翼元公派 在起 留任・水原
翼元公派 在珣 新任・江陵
翼元公派 俊會 新任・扶餘
翼元公派 永會 留任・서울
翼元公派 洙栢 留任・서울
翼元公派 恒植 留任・서울
翼元公派 英植 留任・安東
翼元公派 學永 留任・서울
書雲觀正公派 圭冕 新任・安養
正儀公派 允會 新任・安東
正儀公派 洙東 新任・城南
以上 五〇名

在日宗親會支部長 泰成 日本京都
都評議公派
〃 總務部長 泰弘 日本神戸
在美宗親會支部長 翼元公派 有文(会)
〃 副會長 按廉使公派 斗榮(会)
中華人民共和國支部長 正儀公派 仁會

會報購讀 案内

累次 會報購讀에 對한 案内를 드린바와 같이 지난 會報에 通常會費를 未納한 宗親에게 通知文과 對贊口座用紙를 同封하여 보냈으나 何等의 反應이 없음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이오며 通常會費를 七年間이나 未納한 宗親에게는 今番 會報부터 不得已 中斷하겠사오니 諒察하시기 바랍니다。

翼元公神道碑銘

朝鮮 上洛府院君 諡 翼元公 神道碑銘 純忠奮義 佐命同德 開國功臣 推忠協贊 靖難定社 功臣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兼三勳官領 經筵 事監 春秋館事 世子傅 上洛伯 府院君 諡 翼元金公 神道 碑銘 并序。

大自然의 推移와 運數의 變遷은 세상에서 능히 오래 平和를 持續치 못하고 반드시 혼란하고 망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하늘은 亂을 平定할 사람을 낳게하사 億兆의 君主가 되게 하시고 이분을 輔弼할 人材를 낳아 成功케 하나니 옛날의 宰相 翼元金公이 어른이로다。 公의 諱는 士衡、字는 平甫 號는 洛圃이시며 高祖의 諱는 方慶 이시고 官은 僉議中贊 上洛公이시고 諡는 忠烈이시다。 出將入相하셨으며 國家에 큰 功勳을 세우셨다。

曾祖 恂은 判三司事 上洛伯、諡 文英이시며 祖 永煦는 僉議政丞 上洛侯、諡 貞簡이시고 考 蔵은 領三司事 上洛君이시다。 어머님은 三韓國大夫人 玄風郭氏이시며 苞山君 元振의 따님이시다。 公께서는 高麗 忠惠王 辛巳年(西紀 一三四一年)에 出生하셨다。 젊어서부터 要職을 맡아 責任性 있게 國事를 處理하셨다。 壬申(一三九二)七月에 여러 將相들과 더불어 李太祖(李成桂)를 推戴하신後 나아가 門下侍郎 贊成事 兼 判尚瑞司事가 되시고 또 兵曹典書、鷹揚衛 上護軍을 겸하시고 開國一等功臣勳에 追祿되었다。 十二月에 門下右侍中을 拜受하시고 爵位는 上洛伯에 封해졌다。

食邑 一千戶、食實封 三百戶를 받으시고 丙子(一三九六) 十二月에 門下右政丞으로 五

翼元公神道碑 楊平郡楊西面木旺里

十三日間을 撤朝하고 左副代言 尹須를 殯所에 보내어 祭祀케 하고 諡를 翼元이라 贈하였다。 德을 높이고 功을 報答하는 길이 마땅히 이와 같은지라 史記에 이르되 公께서는 沈深有智하고 每事에 鄭重히 하고 寡默하였으며 안으로는 사람들과 협의를 두고 지낸 일이 없고 밖으로는 사람들에게 모나게한 일이 없으며 財産을 탐내지 않았고 名譽와 女色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벼슬을 마칠 때까지 한번도 彈劾을 받지 않았으며 大司憲이 되신 이듬해에 朝廷이 肅然하고 매양 벼슬을 拜受할 때마다 좋은 人材를 얻었다고 일컬었으니 始終 착한 것은 그 비할데가 드물도다。 이 몇마디 말은 모두 사실을 근거로 하여 直書한 것이니 가히 마땅히 밝고 분명한 일이로다。 지금 世代가 連綿하게 멀리 내려온 後에 그 事實을 어찌 더 添附해서 만들수 있으리오。

配는 馬韓國大夫人 竹山朴氏이시고 三司左使 竹山君 挺의 따님이시다。 二男 一女를 낳셨으니 長男 陸은 同中樞 요、三男 陞은 벼슬이 密直司使라。 따님(女)은 申孝昌에게 出嫁하였으니 벼슬은 判院事요、諡는 齊靖이다。 陞의 子 宗浚은 領護軍이요、宗漢은 生員이요、宗潤은 典籤이요、宗淑은 同樞로 贈領相이다。 宗浚의 子 璜은 吏曹參議요 따님(女)은 柳垠에게로 出嫁하였는데 벼슬은 司正이다。 宗漢의 子는 貴德이요 宗潤의 子 琛은 監察이요、璘은 副正이요 瑛은 通德郎이다。 宗淑의 子 碩은 文科에 及第하여 左議政을 지내시고 左翼功臣에 封하고 諡號는 文靖이다。 備은 文科에 及第 刑曹判書를 지내시고 諡號는 孝昭이다。 積은 牧使로 贈領相이요、斌는 工曹判書를 지내시고 靖國功臣 豊陽君에 封하는 정성을 嘉尚히 여겨 해졌다。 따님(女)은 洪義達에게로 出嫁하였는데 大司成을 지냈다。 璜의 子 繼智는 縣監이요、貴智요、終智는 縣監이다。 따님(女)들은 許誠는 文府尹이요 尹希奎는 文正字요、崔松達은 進士이다。 貴德의 子 乙萬은 通贊이오、琛의 子 善孫은 縣監이다。 女에 權志는 直長이요、璘의子는 有義요、有禮는 縣監이오 有信이고 女는 閔寧은 府使이다。 瓚의子 義章은 牧使며 吉安君이요、禮章은 經歷이오、智章은 府使요、誠章은 文科府使로서 贈大司憲이오 利章은 牧使요、女는 富林君 李湜이오、申銛은 生員이오、碏의子 孟誠은 僉正이오、仲誠은 縣監이오、弟誠은 奉事요 女는 申友灝는 奉事요、二女는 淑儀니 成宗後宮이다。 碩의子 壽章은 文科에 及第 領議政을 지냈고 靖國功臣에 奉해졌으며 諡號는 文敬이다。 壽卿은 參議로서 靖國功臣、贈戶曹參判 永安君이다。 斌의子 仁錫은 參議요 義錫은 郡守이고 禮錫이요 元錫이며 女에 鄭宗輔는 牧使이다。 巨官崇秩이 代代로 빛나니 이 어찌 德이 후한 遺蔭이 아니랴 公의 墓는 楊平郡 中隱洞 乙坐原에 있고 朴氏도 合附했다。

옛날에 훌륭한 碑가 있었는데 歲月이 오래됨에 缺하여 嗣孫 榮珌이 碑를 세우고 저하여 그 族人、主事、在純(現大宗會 總務部長 泰春의 祖父任)이 나에게 글을 請하니 老病에 어찌 붓을 잡으리요마는 當時 八俊中의 一人이요 太祖 潛邸時의 故交이라。 太祖가 일찍이 平州에 거동중 들에서 머무르시고 公을 불러 少時의 情과 開國功勞의 일을 論하시며 술을 서로 권하시기를 옛날과 같이 하시니 풍운이 때를 만나 왕성함은 진실로 景仰하는 바이요、또한 在純이 祖上을 추모하는 정성을 嘉尚히 여겨 드디어 두서없는 말로써 銘하여 가로되 아! 忠烈公이시여 뛰어난 英雄이로다。 文英公과 貞簡公이 代를 이어 公卿이 되시다。 公은 다시때에 應하여 빛을 남기고 名聲을 날렸도다。 自身을 爲함이 아니라 百姓을 널리 救濟함이로다。 精誠은 社稷을 定定함에 있고 功은 開國에 있도다。 盈盛을 싫어하여 누차 그 職을 사양하니 王께서 아름답게 여겨 潛邸하실 때 서로 마음이 맞았으며 生存에 順하시고 死後安寧 하셨으니 子孫이 繁盛하며 오직 楊平에 높은 地域이 있어 片石으로서 가히 말하나니 지나는 者는 宜當 本받으리로다。 公께서 돌아가신뒤 五二六年 甲戌 春 三月 日

資憲大夫、行侍從院卿兼弘文學士 李 愚 冕

保存家訓 紹介

心不離於綱倫　行無愧于天人
處世柔爲貴　强則是危機
急處常思緩　安時不忘危
發言當若訥　臨事皆如癡
世人喜怒勿變色　哀樂相半連隨踵

註：마음에서 오륜삼강을 떠나서는 않니되고 하늘에 머리를 두고 행동이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처세는 오직 부드러운것 만이 귀중하고 강하면 곧 위태로움이 따르고 급할때는 항상 느긋하게 생각하고 편안할때는 위험했던 것을 잊지마라。 말할때는 차근차근이 하라。 일을 당했을때는 어리석다 하도록 처리하라。 세상사람들은 기쁘거나 괴로울때는 무릇 변색하지마라。 슬프거나 즐거움은 서로 반반으로 따르느니라。

安東金氏大宗會 總務部長 泰春

事務室移轉案內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宗親 여러분의 淸安하심을 기원합니다.

今般에 法院廳舍 移轉에 수반하여 저희사무실도 아래 장소로 이전하였음을 삼가 아뢰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사랑과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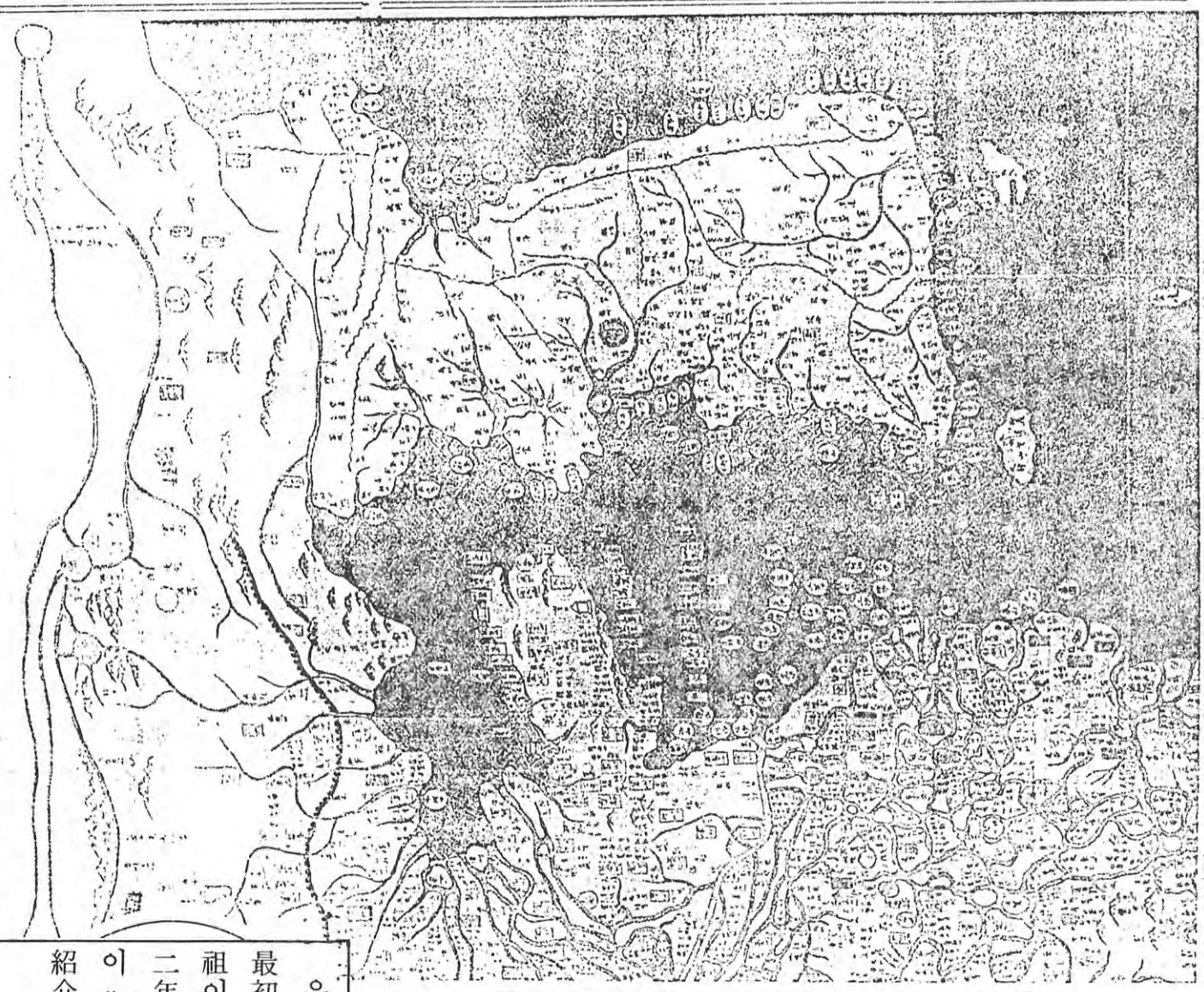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辯護士 金 泰 亨

아 래

移轉場所：서울·瑞草區 瑞草洞 1572 삼송빌딩 505号
辯護士 金 泰 亨 法律事務所
電 話：586-4800

韓國最古의 地圖

韓國最古의 地圖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最初로 製作한 地圖가 우리 先祖이신 翼元公께서 李朝 太宗 二年에 權近、李茂、李薈와 같이 作成한 最古 最初이기에 紹介한다

編輯室

韓國最古의 地圖 解說

1988年9月12日 (月曜日) 【13】

按廉使公派

金 泰 恒

忠北 淸原郡 文義面 馬川里

翼元公派

金 康 植

서울·江東區 吉洞 395-1

翼元公派

金 洙 同

全南 谷城郡 谷城邑 竹東里

(株) 온누리造景理事

翼元公派

金 鏞 澔

서울·瑞草區 方背 2 洞 945-2

TEL. 521-3800~3

祝發展

動靜

★지난 7月4日 翼元公派宗親會 總務이신 在億氏께서 聖水洞1街 東亞病院에서 腹破裂症勢로 手術을 받고 入院加療타가 退院하여 現在療養中이다.

★지난 7月28日 平澤地域 郡事公派宗親會 宗人 35名은 理事 在學氏의 引率로 安東郡 綠轉 忠烈公先祖 墓所와 神道碑閣 檜谷洞 先祖妣墓所를 省墓하고 崇祖理念을 鼓吹하였다.

★郡事公派 洛鏞宗人은 松炭市 稅務課長으로 多年間 勤務타가 初代 松炭市 醫療保險組合長으로 轉任되었다.

★지난 8月19日 淸州 按廉使公派 僉樞公小宗中 宗人 80餘名은 會長 龍會氏의 引率로 安東忠烈公先祖 墓所와 檜谷洞 祖妃墓所를 參拜하고 崇祖理念을 鼓吹하였다.

★白凡 金九先生 41周忌 追慕禮典을 지난 6月26日 午前11時에 孝昌園 金九先生 墓前에서 擧行하였다.

★在京 都評議公派 花樹會創立을 爲하여 지난 7月1日 午前 11時에 東大門밖 東廟境內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參席者와 같이 花樹會를 結成하였다.

壇論

精神없는 삶

大宗會 總務部長 泰春

우리는 只今 各自가 自省하고 謙虛한 마음으로 참다운 人間本然의 姿勢로 되돌아가야 할때인 것이다. 우리는 精神을 차려 個個人 모두를 定立하여 國家發展을 이룩하고 社會安定에 힘써야 할때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가 精神을 놓고 살고 있지나 않나 反省해야 할 것이다. 甚至於 精神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大悟覺醒하여야 하며 俗談에 失手를 했거나 過誤를 犯했을때 精神없는짓을 했다고 나무란다. 그 精神없는 짓이 작게는 個人의 些少한 行動에서부터 家庭에 이르고, 크게는 社會나 國家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影響은 至大한 것이다.

個人이 充實해야 社會가 健全하고 社會가 健全해야 國家基本이 튼튼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精神을 차려 個人이 먼저 充實해야 南北統一을 앞둔 民族課業을 完遂하고 榮光된 未來를 建設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먼저 個人이 充實하려면 日常生活에서부터 始作하여 죽하나 밥 한그릇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져서 나의 所重한 生命延長을 하는 主食을 내가 먹을 수 있게 되었는가를 恒常 感謝한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모든 物資를 節約하고 儉素하여야 되며 奢侈와 過消費를 警戒하여 亡國之風을 追放하는 精神을 바로 차려야 할때인 것이다. 個人이 家庭敎育을 잘 받는 者와 받지 못한 者와는 處身하는 程度가 判異하게 다르다는 事實을 立證하고 있는 現實이다. 그러므로 子女敎育을 徹底히 하여 社會에 有益한 人物을 養成함을 家庭에서부터 民族課業 完遂에 이바지하여야 할 때이다. 家庭敎育의 缺如는 他人에게 弊害를 끼치는 者가 되고 社會에 凶惡犯罪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罪惡으로 몰고가서 結果的으로는 있어야 없는 것만 못한 存在를 낳는것이다. 祖宗은 비록 먼 親戚일지라도 崇尚하여야 되는 것이며 根本을 찾아 올라 가보면 한몸이란 事實을 忘却하고 疎遠하는 사람은 자칫 精神빠진 사람이 되기 쉽고 脫線行爲를 저지를 것이다. 子女敎育에 있어서는 義로운것을 먼저 가르쳐 人格形成을 시켜 正義俱現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길러서 밝은 社會를 創出하는 役軍으로 길러야 될 것이며 子孫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반드시 經書敎育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處世하는데 있어서 財産이란 꼭 必要한 것이지마는 分數밖의 財物을 貪내다가 自身을 沒落시키는 愚를 저지르지 말고 富豪를 貪하여 社會를 病들게 하는 罪惡을 犯하는 數많은 財閥들을 보고 있는 精神빠진 사람들과 共存하고 있는 實情이다. 나하나만은 어떠하랴 하지만 하나는 곧 둘이 되는 것이며 善行은 어려워도 弊習이란 傳染病과 같은 것이어서 瞬息間에 流行이 되어 社會는 곧 病들게 하는 것이므로 各自가 存心涵養하여 몸가짐을 素朴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 가엾은 사람이 이웃에 있으면 뜻하게 보살펴 주는 人情있는 社會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마다 富를 願치 않는 사람은 없지마는 財産이란 어느程度만 있으면 滿足해야 되는 것이지 刻薄하게 財産을 모아 富를 누린 사람은 그 財産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 順理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兄弟叔姪間에 義로움 보다는 財物을 앞세워 骨肉相爭을 하다가 敗家亡身하는 世態를 慨嘆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사랑스런 아내의 말만 듣고 近親間 友愛를 끊는 者나 父母에 孝道를 저버리는 그런 者를 어찌 大丈夫 男子라 일컫을 수 있으랴. 어느 못난 子息이 제子息을 愛之重之하면서 내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하고 넋두리를 하는 못난 子息들아 네 父母도 어김없이 너를 그렇게 키웠노라 斷言하는 것이다. 어느 衆望이 높은 者가 父母를 死別하여 마지막 가시는 父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號哭 한번 하지 않는 者를 바라보는 吊客의 心情은 저것이 子息된 道理라면 누가 子息낳기를 바랄 것이며 父母死後 몇날이 되지도 않했것마는 紙榜 한장 붙여놓지 않고 吊問客을 맞는 不孝子息을 보았다. 어쩌다 世態가 이토록 모질도록 變했으며 換腸한 群像이 우글거리는 沒落한 社會가 漸次 病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人倫은 墮落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例事로 하는 무서운 世相이 된것도 家庭敎育의 缺乏에서 오는 利己主義와 行樂頹廢에 中毒된 物質萬能에서 오는 現實抵抗의 精神빠진 行態인 것이다. 子女의 結婚에 훌륭한 家門이나 엄청난 婚需는 愛情으로 男女가 結合되어야 참다운 삶을 하는 것이지 權勢나 物質은 곧 變質되어 그 結婚은 破綻으로 歸結되는 것은 自然의 理致인 것이다. 어리석거나 가난한 사람이 嬌慢한 것처럼 賤한 것이 없고 權勢나 富豪를 누리고 사는 사람 앞에서 卑屈하거나 阿諂하는 것처럼 羞恥스러운 것이 없고 (處身은 多言多失하느니 鄭重하고 嚴肅하여 施惠勿念하고 受恩莫忘하여 恒常 經書를 배워서 志在聖賢하고 家庭敎育을 徹底히 하여 各己 齊家하고 社會를 淨化하고 國利民福을 置重하고 守分安命하며 南北統一의 役軍이 되어 泰平聖世를 누리도록 옷깃을 여미고 精神을 가다듬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精神을 차립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되자

常識

世와 代

始祖를 一世로하여 차례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 世이며 자기를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 代이다.

例컨데 父子의 사이는 世로는 二世이지만 代로는 一代이다. 始祖로부터 二十一世가 되는 사람은 始祖가 二十代祖이며 始祖에게는 二十代孫에 該當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世와代를 같은 뜻으로 錯覺 混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嚴然히 區別되어 있다. 即世는 自己까지 合數하여 計算한 代數이며 代는 自己를 빼고 바로 윗代 아버지까지를 合數하여 計算한 代數를 말한다.

例를 들면 다음과같다.

例、高祖는 나의 四代祖이다. 나는 高祖의 四代孫이다.

이 경우는 自己가 合數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代를 써야하며 「世」로 表示할 경우는 自己가 合數되기 때문에 「五世祖」도 「五世孫」이라는 計算이 되나 가까운 先祖에는 世를 쓰지 아니하므로 五世祖(高祖)는 四代祖라 한다.

玄孫	昆孫	仍孫	雲孫	來孫	玄孫	曾孫	孫	子	父	祖	曾祖	高祖	玄祖
六代孫	七代孫	八代孫	五代孫	四代孫	三代孫	二代孫	一代孫	一代	二代	三代祖	四代祖	五代祖	自己 ○

按廉使公派 金天會 서울·城北區 鍾岩三洞 三—一〇九九

郡事公派 金泰植 경기도 화성군 장안면 금의二리

按廉使公派 金泰成 忠北 鎭川郡 鎭川邑 邑內里 七五—六

翼元公派 金在範 서울·九老區 始興洞 三一八—一三

郡事公派 金在根 全北 扶安郡 幸安面 大草里

翼元公派 金在浩 釜山市 東萊區 巨濟三洞 三八—四五

翼元公派 金奎會 光州市 西區 松下洞 二五四—一

翼元公派 金在環 서울·東大門區 祭基洞 미주아파트

挽廉使公派 金龍植 서울·松坡區 長旨洞 二二四

提學公派 金奎浩 忠北 槐山郡 沙利面 水岩里

本原稿는 지난 8일, 개최된 成均館大 儒學大學과 中國延邊大의 交流학술발표회에서 李洪淳 연변대 敎授가 발표한 「儒敎와 現代社會」라는 주제의 論文을 전제한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李교수는 儒敎를 비판하고 배척함으로써 中國이 현대역사속에 저지른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編輯者

論壇

李洪淳
(中國延邊大 敎授
朝鮮問題硏究所)

儒敎배척은 民族文化의 否定을 意味

孔子에 의하여 創始된 儒家學說은 「禮樂」, 「仁義」, 「忠恕」와 不偏不倚, 無過不及의 「中庸」之道를 주장한다. 政治上에서 「德治」, 「仁政」과 「王道」를 提倡하며 倫理道德敎育과 自我의 修身養性을 중시한다. 戰國時期儒家內部는 八派로 나누어졌는데 其中重要한 地位를 占한 것은 孟子와 荀子의 兩派였다. 漢武帝가 「罷黜百家, 獨尊儒術」을 시행한 이후 儒學은 점차 中國封建社會文化의 主流로 되었다.

中國의 儒家學說은 그가 主流를 形成한 以來, 時代의 需要에 適應하며 演變過程을 거쳤었는데 말하자면 董仲舒의 孔子, 朱熹의 孔子, 康有爲의 孔子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孔子의 面貌는 時代階級의 不同에 따라 變異하게 되어 그 原型과 엄청난 差別이 있게 되었다. 孔子의 「述而不作」의 「托古改制」로 되었고 孔子에게는 禁慾思想이 없으나 宋儒에서는 「存天理滅人欲」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偏離와 變異는 依然히 그 仁學의 母體體系와 實踐理性의 基本精神을 完全히 脫離한 것은 아니었다.

中國의 歷史發展過程을 回顧하여 보면 近現代에 들어서면서 西方文化의 傳來와 더불어 특히 5·4運動以來 孔子의 儒學思想은 猛烈한 批判과 排斥을 받아왔다. 當時 이러한 批判은 孔子의 原型 속에 깃들어 있는 君主專制, 血緣에 基礎한 宗法等級制, 「安貧樂道」, 卽 物質로서가 아니라 道德을 價値尺度로 하는 某種平均化의 經濟平等論은 資産階級民主革命의 당연한 對象으로서 그에 대한 批判과 排斥은 現實的인 必要性과 理論的인 合理性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응당 肯定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批判이 儒敎思想을 徹底히 부정하는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社會의 發展과 人民에 대해서도 有害할 뿐만아니라, 그 어떤 理論上의 合理性도 없다. 왜냐하면 儒學은 中韓 두나라 傳統文化의 主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全面的인 否定과 排斥은 곧 自己民族의 傳統文化를 否定하는 虛無主義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中韓日등 東方諸國 傳統文化의 主體를 形成하고 있는 儒敎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往往 文化思想이 社會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過大하게 評價하는 文化決定論的 思想傾向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그들은 現代化建設에서 最大의 障碍는 儒學을 비롯한 傳統文化와 기타 各種宗敎思想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의 徹底한 否定과 숙청이 없이는 社會現代化의 實現은 불가능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中國이 現代化建設에서 뒤떨어진 主要原因이 마치 儒敎思想에서 온 것처럼 보고 있다. 勿論 良好한 文化環境은 社會發展過程에서 忽視할 수 없는 主要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발전의 唯一한 決定的인 因素는 아니며, 經濟變更과 政治制度의 變革이 提供하는 社會諸條件에 依賴하게 된다. 그러므로 經濟的 諸因素야말로 결정적인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다시피 世界의 經濟大國으로 公認을 받고있는 日本이나 아세아에서 經濟와 科學技術에서 先進隊列에 들어선 韓國, 홍콩, 대만, 싱가폴등 나라와 같은 地域에서는 孔子의 儒學思想을 아주 높은 地位에 놓고 宣揚하고 있으며 基督敎를 비롯한 각종종교가 盛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진보와 정체의 主要原因이 文化問題에 있다고 하면서 傳統文化가 社會發展에서 일으키는 作用을 偏向的으로 과대한 사상경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한다. 優良한 傳統文化가 經濟基礎의 變更과 정치제도의 개혁에 적극적인 추진작용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中國이 改革開放政策을 실시한 이 몇년간 거둔 輝煌한 成就는 그것을 如實히 증명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양호한 文化環境의 조성은 도리어 경제기초의 변경과 정치제도의 개혁이 제공한 社會經濟諸條件에 依賴함을 똑똑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傳統的儒敎思想과 現代思想은 歷史的으로 密接하게 연계되어 있다.

中國民族은 2500년을 헤아리는 오랜기간 유학사상의 影響하에 살아왔음으로 우리가 主觀下에서 그 傳統을 完全히 버리려고 하여도 그것은 依然히 現代社會와 혈육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달은 一方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를 讚美하려 하여도 그것은 이미 다시 原來의 面貌대로 再復活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學思想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복고적인 경향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허무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의 半植民地社會 中에서 中華民族의 관념, 行爲習慣, 信仰, 思惟方式, 感情狀態중에 浸透되어 자각 혹은 비자각적으로 사람들이 각종사무, 관계와생활을 처리하는 지도원칙과 기본방침으로 되었으며, 이 민족의 모종공통적인 심리상태와 성격특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우리의 血肉과 영혼에 스며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 各界時代를 거치면서 많은 演變過程을 거쳤으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産生된 다음에는 어느 한 시대의 경제와 정치에 직접 복종하지 않는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신발전의 규율을 가지고 있다. 같은 儒學圈內에 속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影響하에 主觀下에서 그에 대한 批判과 排斥은 現實的인 必要性과 理論的인 合理性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응당 肯定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批判이 儒敎思想을 徹底히 부정하는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社會의 發展과 人民에 대해서도 有害할뿐아니라 그어떤 理論上의 合理性도 없다. 왜냐하면 儒學은 中韓 두나라 傳統文化의 主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全面的인 否定과 排斥은 곧 自己民族의 傳統文化를 否定하는 虛無主義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中韓日등 東方諸國 傳統文化의 主體를 形成하고 있는 儒敎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往往 文化思想이 社會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過大하게 評價하는 文化決定論的 思想傾向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그들은 現代化建設에서 最大의 障碍는 儒學을 비롯한 傳統文化와 기타 各種宗敎思想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의 徹底한 否定과 숙청이 없이는 社會現代化의 實現은 불가능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中國이 現代化建設에서 뒤떨어진 主要原因이 마치 儒敎思想에서 온 것처럼 보고 있다. 勿論 良好한 文化環境은 社會發展過程에서 忽視할 수 없는 主要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발전의 唯一한 決定的인 因素는 아니며, 經濟變更과 政治制度의 變革이 提供하는 社會諸條件에 依賴함을 뚜렷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傳統的儒敎思想과 現代思想은 歷史的으로 密接하게 연계되어 있다.

中國民族은 2500년을 헤아리는 오랜기간 유학사상의 影響하에 살아왔음으로 우리가 主觀下에서 그 傳統을 完全히 버리려고 하여도 그것은 依然히 現代社會와 혈육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달은 一方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를 讚美하려 하여도 그것은 이미 다시 原來의 面貌대로 再復活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學思想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복고적인 경향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허무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의 半植民地社會 中에서 中華民族의 관념, 行爲習慣, 信仰, 思惟方式, 感情狀態중에 浸透되어 자각 혹은 비자각적으로 사람들이 각종사무, 관계와생활을 처리하는 지도원칙과 기본방침으로 되었으며, 이 민족의 모종공통적인 심리상태와 성격특징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든 싫든간에 우리의 血肉과 영혼에 스며든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서 各界時代를 거치면서 많은 演變過程을 거쳤으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産生된 다음에는 어느 한 시대의 경제와 정치에 직접 복종하지 않는 상대적인 독립성과 자신발전의 규율을 가지고 있다. 같은 儒學圈內에 속하는 나라라 하더라도 불구하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影響하에 主觀下에서 그에 대한 批判과 排斥은 現實的인 必要性과 理論的인 合理性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응당 肯定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이 批判이 儒敎思想을 徹底히 부정하는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社會의 發展과 人民에 대해서도 有害할뿐아니라 그어떤 理論上의 合理性도 없다. 왜냐하면 儒學은 中韓 두나라 傳統文化의 主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全面的인 否定과 排斥은 곧 自己民族의 傳統文化를 否定하는 虛無主義에 빠지고 말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中韓日등 東方諸國 傳統文化의 主體를 形成하고 있는 儒敎에 대하여 全面的으로 否定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往往 文化思想이 社會發展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過大하게 評價하는 文化決定論的 思想傾向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그들은 現代化建設에서 最大의 障碍는 儒學을 비롯한 傳統文化와 기타 各種宗敎思想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것의 徹底한 否定과 숙청이 없이는 社會現代化의 實現은 불가능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 즉 오늘날의 中國이 現代化建設에서 뒤떨어진 主要原因이 마치 儒敎思想에서 온 것처럼 보고 있다. 勿論 良好한 文化環境은 社會發展過程에서 忽視할 수 없는 主要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그는 사회발전의 唯一한 決定的인 因素는 아니며, 經濟變更과 政治制度의 變革이 提供하는 社會諸條件에 依賴함을 뚜렷히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傳統的儒敎思想과 現代思想은 歷史的으로 密接하게 연계되어 있다.

中國民族은 2500년을 헤아리는 오랜기간 유학사상의 影響하에 살아왔음으로 우리가 主觀下에서 그 傳統을 完全히 버리려고 하여도 그것은 依然히 現代社會와 혈육적인 연계를 가지고 있다. 달은 一方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를 讚美하려 하여도 그것은 이미 다시 原來의 面貌대로 再復活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儒學思想을 전면적으로 긍정하는 복고적인 경향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허무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못하다. 우리의

儒敎와 現代社會

儒敎精神배워 先進民族되는것이 歷史的 傳統을 이어받아 東方禮儀之國으로 세계에 널리알려져 더 그우수한 中國보다도

"韓國은 儒學思想의 發源地인 中國보다도 더 그우수한 傳統을 이어받아 東方禮儀之國으로 세계에 널리알려져"

"5. 4運動 以來 孔子의 儒學思想은 猛烈한 批判과 排斥을 받아왔다. 그러나 만일 이 批判이 철저히 부정하는데로 나아간다면 이는 社會의 發展과 人民에 대해서도 有害할뿐아니라 그어떤 理論上의 合理性도 없다"
— 本文中에서

전통문화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儒敎에도 二律背反의 規律에 그대로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우수함과 결함이 并存하기 마련인데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그것을 정확히 識別하고 精華를 繼承發揚하고 糟粕을 批判除去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심오한 이론문제인 동시에 복잡한 실제문제이다.

유교사상은 中國奴隷制, 封建制, 資本主義社會에 걸쳐 2천여년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영향은 아세아 각국에 미쳤다. 그러므로 儒敎精神은 그 시대 그 사회의 産物이며 그 시대 그 사회의 特徵을 반영하고 있

外國에서 본 韓國

김 도 진

〈CSULA환태평양 연구소 고문〉

비판없이 서구문화 모방말고 좋은우리것 장려

「우리」정신 투철한 한국, 외국서 부러워해

세계 석학들도 한국의 가족주의사상 찬양

TV의 나쁜영향 청소년들 무조건수용 큰우려

년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모국의 소식은 기쁜 소식보다 슬픈 소식, 밝은 면보다 어두운면이 많이 보도되고있다. 심지어는 외국기자들이 우리나라를 비웃는 기사가 속출하여 우리들의 심정을 어둡게 하고있다. 불란시의 모 기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가리켜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에 한마리 지렁이로 전락하고 있다고 혹평했고 각국 기자들은 심배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다는 등 갖가지 표현으로 한국을 비웃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이로인해 나뿐이 아니라 이곳 교포 모두에게 침통함을 느끼게하고있다. 그래서 나는 조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에게 애국심의 일반을 호소 하고자하니 과히 허물치 마시길 바란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곳 미국의 각 대학에서 한 태평양 연구소가 속출하여 서로가 한국학 연구에 일을 올리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의 혼란상태를 연구하려는것은 아닌것이다. 거대한 나라 소련 중국을 비롯하여 동구권 공산국가들까지 한국과 손잡자고 몰려오는것을 보고 우리의 경제 기적과 88올림픽 성공의 원동력을 배우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가 환태평양 연구소에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주장하는것이 있다.

1986년 8월25 부터 10회에 걸쳐 LA 일간지에 청소년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있다. 나는 이 기사에서 교포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국은 이제 이루울 만이 나자나가고 이 점 선진이 한란하게 비전 것이니 개발 도상 국가의 비애로 말미암아 움츠렸던 어깨를 펴라고 격려 한바있다. 그후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기적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진행이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비롯하여 우리 교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하며 환희에 넘치는 나

우리나라는 비록 부유하지는 못하지만 부모에 효도하고 부모의 행복은 즉 자녀의 행복,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행복, 나와 너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투철한나라, 부부가 화합하여 이혼없는 나라. 나라에 충성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스승은 제자를 자기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연장자를 존경하고 후배들을 자기자녀와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 주는 나라 친구와 동료들끼리는 서로믿고 자기 가족과같이 사랑하고 좋은일 궂은일들을 두루 돌보아주며 종업원들은 기업을 자기기업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라고 그래서 서구를 비롯하여 세계인들은 이러한 우리나라를 배우라고하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을 잘아는 외국 기자들 중에는 우리의 이러한 점을 부러워하고있다.

시속 제일방송국 다큐멘타리 제작국장 피--디 그랩씨는 서구의 물질위주의 개인주의사상은 이제 빛에 부딪쳤고 한국의 가치관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바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석학들은 우리의 가족주의사상을 극구 찬양하고 있는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 TV드라마 영화등 대부분의 작품들이 가정파탄, 이혼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작품들을 인방극장에서 흔히 시청되고 있는데 가정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분별없이 보고 듣고 있지 않은지?

작가들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옳바른 길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이겠지만 우리나라 실정은 서구문화의 홍수속에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이를 보고 이혼이 당연한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다. 또 서구에서는 이혼을 흉으로 알지않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받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마약 문제와 총기 살인사건등 점차 심화되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또한 서구문화의 영향이라고 말하면 지나친말일지 이곳 미국에서는 총기의 자유소지의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이로 인해 국민학교 아이가 자기를 꾸짖는 스승을 총기를 난사하여 죽이는일 부모의 꾸지람을 듣고 좋은 부모에게 쏘기니 거누는일, 매를 맞고 칼칼에 고민하여 부모를 찔창신세 지게하는 일등 총기사건은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을뿐 아니라 끊임없이 보도되고있다. 필자가 기국기회가 있을때마다 인방극장인 TV에서 외국영화중 총기살인사건, 권씨음등 우리가 지탄때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끔찍끔찍한 장면들을 비짓이 방영하고 있었다. 방송당국의 말인즉 이는 어린이 프로가 아니고 외래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라고한다.

우리나라 실정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판단력이 있고 부모자녀간의 대화가 잘되어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 다수의 가정이 이렇지 않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무의식중이라도 이를 비판없이 받아들이는것, 어쩌면 당연한지 모른다. 그래서 이를 액면대로 흉내내는 즉흥적 행동으로 옮겨지지나 않을지? 미천한 나의 생각으로는 마약문제 하나만으로도 우리나라 국가장래가 죄우된 것으로 우려한다.

이곳 미국의 마약 문제는 정권을 걸고 투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약 40억$을 사용하면서도 마약뿌리의 실마리도 잡지못했고 현 부시 대통령은 항공모함과 군대를 동원하여 마약 루트를 차단하는 선전포고를 하였고 파나마의 국가원수를 세계여론을 무릅쓰고 많은 인명피해와 군비를 비려가며 체포, 미국재판에 회부하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 측면도 포함되었지만)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도 뚜렷한 근절책이 없어 다시 107억$ 이란 막대한 예산을 세우고있다. 과연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에 대해 이러한 엄청난 예산과 힘이 있을지 문제이다. 비판없이 서구문화를 모방하고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를 알려 뱀새가 황새따르려다 어씨된다는 우리 속담을 깨우쳐주고 싶다.

우리나라가 서구물질문명을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이나 우리의 미풍양속과 남이 부러워하는 가족주의등 정신문화까지 버리고 우리의 체질에 맞지도 않는 물질위주의 개인주의 사상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사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나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 외국에나와 있으면서 조국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모든것이 기우이길 바라며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았다.

남의것 좋다더니
우리것만 못하더라
따르고 따라봐도
지나보니 그아니다.
우리것 싫다말고
닦고 닦아 지녀가자
나만아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되기쉽네
우리 아는 가족주의
단결심 키워가자
경제기적 88기적
세계가 놀라다라
동포들아 진흙되어
힘을 모아 뭉쳐가자
서로들 헐뜯으면
흩어져 모래된다.
세계사람 비웃어도
알미웁게 조롱해도
마음모은 숭천용이
지렁이 될까보냐

1990년. 원단 주몽 김도진